

<여행과 자연을 사랑한 가인 ‘와카야마 보쿠스이’>

식욕의 가을, 독서의 가을, 여러 가을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예술의 가을을 탐구해보지 않으실래요? 미술관을 돌아보는 것도 좋고, 맑은 가을하늘 아래서 풍경화를 그리거나 단풍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것도 이 시기에는 즐겁지요. 이번에는 미야자키 출신의 가인(歌人)으로 탄생 140 주년을 맞이한 와카야마 보쿠스이를 소개합니다.



와카야마 보쿠스이는 1885년 미야자키현 히가시우스키군

쓰보야무라(현 휴가시 도고초)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와카야마 시게루이지만, 19살 때 호를 보쿠스이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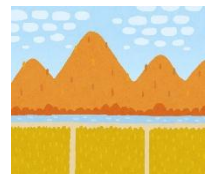
보쿠스이(牧水)의 ‘牧’은 어머니의 이름인 마키(牧)에서, ‘水’는 생가 주변의 계곡과 강물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보쿠스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단가를 지은 이래, 재학 중 500수가 넘는 단가를 신문과 문예 잡지에 투고했습니다. 와세다대학 진학 후에도 단가 실력을 닦아 졸업 후 가집 ‘바다의 소리(海の声)’를 출판했습니다만, 판매가 부진하여 신문기자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신문사도 반년 후 퇴사해 다음 해인 1910년에 ‘이별(別離)’을 간행, 해당 가집은 가단 뿐만 아니라 폭넓은 주목을 받아, 가인 보쿠스이의 이름은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인으로서의 성공을 쥐었어도 보쿠스이는 자연을 찾아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여행에 대해서 노래한 대표작의 하나를 소개합니다.

いくやまかわ

幾山河越えさり行かば寂しさの終てなむ国ぞ今日も旅ゆく

얼마나 많은 산하 넘어 가며는 외로움 멎을 땅이런가 오늘도

나그넷길 떠나네



보쿠스이는 43살에 건강을 해쳐 그 생의 막을 내릴 때까지 14권의 가집을 출판했습니다. 보쿠스이의 유골은 분골되어, 어머니 마키가 세상을 떠난 후 그 가슴에 안겨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미야자키현에는 보쿠스이의 이름을 딴 공원도 있습니다. 기념관도 병설되어 있으니, 보쿠스이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부디 방문해 보세요.

아트 페스티벌, 인터내셔널 페스타의 상세 정보는 본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www.mif.or.jp>)

이 코너로의 질문, 의견, 요청 사항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32-8457 FAX : 0985-32-8512 Email : miyainfo@mif.or.jp

일상생활에 관하여 질문 및 고민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외국인 서포트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41-5901 FAX : 0985-41-5902 Email : support@mif.or.jp